

특허청장,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 진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

- 대미 수출 최대 교두보...현지 진출 6개 기업 참석 -
- 우리기업 해외 진출 시 지재권 확보·분쟁예방 중요성 강조 -

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4월 25일(화) 오후 3시(현지시간),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*)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로스앤젤레스(LA)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2012년 3월에 개소한 이후, 미국 변호사 2명이 미국 서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상담, 법률자문, 지재권 법률서비스 등 제공

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최대 교두보인 캘리포니아주* 로스앤젤레스(LA)에서 우리 기업들**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'22년 韓 신규법인 수(수출입은행): (1위) 캘리포니아 195, (2위) 델라웨어 133, (3위) 텍사스 51

** Spigen, BKT, Nicste USA, Mostive USA, JobKorea USA, MarqVision 등 6개사

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▲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, ▲ 신뢰성 있는 지재권 전문 법률회사(로펌) 정보 부족, ▲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하였다.

이에 대해, 미국 현지 지재권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특허·상표 침해 등 지재권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,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리 지재권 분쟁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.

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지재권 확보와 분쟁예방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”라고 강조하고, “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지원을 확대하고,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	한덕원 (042-481-5182)
		담당자	서기관	송석민 (042-481-3917)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정대순 (042-481-5063)
		담당자	서기관	황상동 (042-481-8659)